

교회 목표

신앙의 예배
천국으로 향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관 중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골로새서 1:21)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4 총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도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에베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2004년도 단기선교 상반기 결산

에베에셀 - 올해 첫날, 우리는 신년예배를 드림에서 온 교회가 주님이 걸으신 복음의 길 을 걷 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다. 그렇게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시작한 2004년도 단기선교사역! 어느 덧 한 해의 절반인 6개월을 보내고 단기선교 상반기 결산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레셋을 물리친 후 에 돌을 취하여 미사바와 셀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 며 그 이름을 ‘에베에셀’이라 불렀듯이,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서로 모든 일이 주님의 이끄심과 도우심과 은혜로 시작되고 진행되어 마쳤기 때문이다.

전행상황 - 2004년도 단기선교사역을 위해서 구성된 선교 팀은 현재까지 총 211개 팀, 연인원 1,989명의 성도들이다. 지금도 계속해서 팀들이 구성되고 있고 더 많은 성도들이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이 중에서 7월 2일 현재, 사역을 마친 팀은 총 71개 팀, 672명의 성도들이며, 현재 사 역 중인 팀은 6개 팀, 53명의 성도들이다. 그리고 134개 팀, 1,264명의 성도들이 7월과 8월을 중 심으로 하반기에 선교를 다녀오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단기선교를 향한 성도들의 열심은 혼련 에 참여하는 뜨거운 열기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교회개척에 개관된 CMTC훈련은 지금 까지 다섯 차례로 나누어 실시되었는데, 이미 1,997명의 성도들이 훈련을 수료하였고, 오늘(7월 4 일)과 다음 주일(14일)에 CMTC훈련이 실시된다. 앞으로는 더 많은 성도들이 CMTC훈련에 참여 하고 단기선교에 헌신하리라 믿는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름 이루시리라”(사 9:7b).

오직 앞으로 전진! -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선교사역에 있어서 일시 정지나 후퇴 는 있을 수 없다. 주께서 여전히 일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쉴 수 있겠는가! 오직 참조!) 오직 전 진만 있는 뿐이다. 그래서 갈수록 우리의 선교지는 더욱 넓어질 것이다. 저 북방 열음산에 도! 대양 끝에 있는 산악성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하는 날이 올 것이다. 올해만 해도 현지 담사들이 여러 차례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 현지담사를 마쳤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넓어진 선 교지역으로 흠어져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사역에 감사하는 동 시에 거룩한 열심을 내어 더 넓은 선교지를 바라보며, 새로운 나라와 소외된 지역을 향하여 나 아갈 준비를 하자. 선교의 경향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전보다 더 겸손하게, 이전보다 더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내년의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뜨거운 나눔의 기도와 성령님의 의지하는 간절한 기도로 올해의 후반기 사역을 마무리하고 내년의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도록 하자.

반은 은혜를 헤아리며 시작하는 한 해의 나머지 절반 오늘, 맥주감사절에 대해 드리고 성찬식을 행하면서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마치고 나머지 절반을 시작하는 첫 주일이다. 이 날 우 리는 맥주감사절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 졌다. 또 주의 만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자자 한 번 몸감사해 체험 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 해의 나머지 절반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헤아리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실로 주님은 때때로 일마다 연단해주시기 쉬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고후 1:3).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고 혼란적 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올해의 남은 6개월을 시작하면서 남모르는 안타까움 과 두려움과 걱정으로 마음이 괴로운 성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주님 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자자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에 게 소망을 주셨다. 그렇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형편이 어떤 모습이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분!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 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히 13:5b)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

그러므로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담대 히 서도록 하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 번 헤아려보고 믿음 과 소망으로 이 참난한 시대를 헤쳐 나가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와 이름 부르며 여호와의 모 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감동하리라’(시 116:12-14). 이리 고백으로 고된 삶의 현장에 담대하게 대처하며, 온 세상에 십자가의 복음을 소리 높여 외 치도록 하자.

오늘 CMTC 훈련일정

1 교시(18:10-19:10)	강소	2 교시(19:20-20:20)	강소
총현교회의 선교정책	김필리홍	선교의 성경적 기초	김필리홍

금주 수요2부예배(7일), 권사회 헌신예배

참석대상: 권사회에 소속한 모든 권사

달고 오묘한 그림자(금요일전) - 천국 복음

제1장.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 제2장. 장래에 임할 천국 / 제3장. 이 세상에 있는 천국

제4장 천국의 비밀 (2)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사람들 가운데 임하였으나 사람들이 아직도 그 나라를 거부하여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형태로 서 두루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구 약의 법을 알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왜 사슬을 묶은 혼돈스러운 일이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구 를 받아들이 거부할 수 있던 일인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혼란 을 느끼는 것이다. 장자 어느 한 날, 큰 구멍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큰 강으로 이 땅 위에서 불의와 죄 악과 사단, 그리고 죽음으로 쏘아 쏘아버릴 것이다. 그러 나 이것은, 지금은, “그 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가 되고 있단다. 사람들은 사물을 보고 억울 억울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도 억울하고 억울하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안 받고는 사람이 그것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또 그 나라에 복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즉, 믿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도 록 부름 받은 일꾼들의 사역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써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다. 사람들에게 권하고 간청하고 호소할 따름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도 사람 들에게 강제로 요구하거나 몰아넣을 수 없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이들의 삶 속에 결실하도록, 듣는 이들의 마음 문이 열리도록 간절히 권유할 뿐이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은 그 때문에 아첨하게 할 수 없는 부당한 상대에 놓여있다. 하나님의 비유도 이러한 천리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어떤 사람이 밭에 종을 사들였는데, 그 종의 원 수까지 와서 그곳에 가리자를 뿌려놓았다(마 13:24-25). 그 결과 추수 때까지 한 밭에서 곡식과 가리자가 함께 자라 수밖에 없게 되었다(마 29-30절). 추수 때가 되어야 알곡과 가리자는 구별되 어 나누어질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밭은 세상이다”(마 13:38a)라는 말씀이다. 이 ‘밭’을 ‘교

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예수님은 교회의 복합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복합성을 말씀하셨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한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 들이요 가리자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리자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요’(마 13:38-39). 분명히 심판일이 올 것이며 그 날에는 분명히 악인과 의 인이 따로 갈라지는 마지막 영적일이 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미 천국의 아들들이 되었지만, 세상의 끝이 되기까지는 이 세상에서 악한 자의 아들들과 함께 살 아야만 하는 것이다. 세상 끝 날, 그 때에만 알곡과 가리자가 구별될 것이다. 구약의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예수의 말씀이 놀라운 선의와도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면 모든 불의가 소멸되고 악이 없어져야 한다고 그들은 철칙같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짓말의 비유는 그렇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마 13:31-32). 즉, 하나님의 나라 가 현재 사람들 가운데 임하였으나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으로 임하였음을 잘 보 여주고 있다. 아주 작고 하찮은 것 한 알의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이 작은 것으로 임하는 것 이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이다. 보잘것없이 보이는 겉모양 때문에 속지 말고라고 주님은 경고하셨다. 또한 그것이 점차적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다. 장자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위에 완전히, 충만하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나라는 현재 전혀 예측치 못한 형상으로 임하였다. 눈에 보이기 힘들 정도로 작은 것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요, 따라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누룩의 비유 역시 이와 같은 천리의 말씀을 나타내 주고 있다(마 13:33). 한 줌의 누룩이 온 편반죽 통을 채우듯이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충만해 지는 “그 날”이 올 것이다. 하 나님의 목적은 결코 실패로 돌아가는 법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다. 이제 그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 모두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살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 가운데 대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작고 보잘것없이 보아도 그보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요 또 장자 “그 날”이 이르면 완전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이기도 하다.

Place for the Word

⁽³¹⁾Jesus therefore was saying to those Jews who had believed Him, "If you abide in My word, [then] you are truly disciples of Mine; ⁽³²⁾and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³³⁾They answered Him, "We are Abraham's offspring, and have never yet been enslaved to anyone; how is it that You say, 'You shall become free'?"

⁽³⁴⁾Jesus answered them, "Truly, truly, I say to you, everyone who commits sin is the slave of sin." ⁽³⁵⁾And the slave does not remain in the house forever; the son does remain forever. ⁽³⁶⁾"If therefore the Son shall make you free, you shall be free indeed." ⁽³⁷⁾I know that you are Abraham's offspring; yet you seek to kill Me, because My word has no place in you. (John 8:31-37)

When the Word came to this earth, most people did not make a place in their mind to hold and treasure Him. Although the human mind is quite expansive, the majority of people today, as in the past, don't make room for Jesus Christ. They choose to fill their lives with worldly values and beautiful earthly things. As you may well know, what is important to someone directly affects their actions. What you believe absolutely influences how you think and behave. Jesus told some Jews who believed in Him: "If you abide in My word, then you are truly disciples of Mine; and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make you free" (vv. 31&32). Immediately, these Jews showed that they did not abide in God's Word when they told Jesus, "We are Abraham's descendants and have never yet been enslaved to anyone; how is it that You say, 'You will become free'?" (v. 33). The expression of their inside thoughts proved that they do not know the truth!

Do you have a special place inside your mind for the Word of God? If you do, then your thoughts, feelings, and actions will reveal it. Many of today's Christians claim to believe in Jesus, and some even read the Bible, but when push comes to shove, they don't act like disciples of Jesus. They forget God's Word because they don't have a place inside of their minds for it. Their desire for other things takes precedence, and leaves little to no room for God's word. When David talked about his special place, he prayed for God to cleanse it: "Behold, You desire truth in the innermost being, and in the hidden part You will make me know wisdom. Purify me with hyssop, and I shall be clean; wash me, and I shall be whiter than snow" (Ps. 51:6-7). His sincere desire for God's word is revealed in his biblical writings.

What are your actions like during trials and tribulations? Do you obey the Word of God or do you do whatever you want? Paul instructed, "Let the word of Christ richly dwell within you, with all wisdom teaching and admonishing one another with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ing with thankfulness in your hearts to God" (Col. 3:16). As a Christian, how is it possible for you to read your Bible and then carry on like a child of the devil? Is not just one single word really important to you? Jeremiah prayed, "Your words were found and I ate them, and Your words became for me a joy and the delight of my heart; for I have been called by Your name, O Lord God of hosts" (Jer. 15:16). God's Word may taste bitter on the outside, at times, but on the inside it is the very best medicine.

Does the word of God have an honorable place inside your mind? Whenever the preacher preaches the word of God, are you respectfully listening? Are you really paying attention, to the point where your faith is growing? Is your heart voluntarily obeying because you place the word of God above all others? Jesus told the Jews who believed Him, "He who is of God hears the words of God; for this reason you do not hear them, because you are not of God (Jn. 8:47). In Luke 6:46, He also said, "Why do you call Me, 'Lord, Lord,' and do not do what I say?" Matthew 7:24 reminds us, "Therefore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acts on them, may be compared to a wise man who built his house on the rock." Wherever Jesus leads, do you follow? If He is headed to Calvary Mountain, will you still walk behind Him?

God is eternal. Samuel called Him, "the Glory of Israel," and said, "the Glory of Israel will not lie or change His mind; for He is not a man and He should change His mind" (1 Sam. 15:29). I hope you believe that God is the glory of believers. The world respects beautiful looking movie stars, famous athletes, and wealthy people. Popularity and personal experience seem to guide worldly minds. Jesus said, "Behold, I have told you in advance" (Mt. 24:25). He warns us about being misled! Do you respect the Word of God? Psalm 119:105 reads,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to my

path." Psalm 119:72 says, "The law of Your mouth is better to me than thousands of gold and silver pieces." David also reflects on the words of God by saying, "They are more desirable than gold, yes, than much fine gold; sweeter also than honey and the drippings of the honeycomb. Moreover, by them Your servant is warned; in keeping them there is great reward" (Ps. 19:10&11). Does the word of God have an honorable place in your mind?

The believing Jews in today's Bible verses had no place for God's word. Jesus told them; "I know that you are Abraham's descendants; yet you seek to kill Me, because My words have no place in you" (v. 37). They wanted to kill Jesus because their minds were void of God's word. They didn't keep God's word in an honorable place. Instead, their pride in tradition, bloodlines, and other earthly things were more important, thus distorting their ideas of truth. Whereas they thought they were God's children, praying and reading the Bible everyday, in truth they were children of the devil. Inside they had no place for the word of God. Sadly, too many of today's preachers, theologians, and church members teach and preach from the Bible, but have no place within them for God's word.

God's word must be inside you, in an honorable place, or it will have no place in your life. How can you say you are a child of God or how can you say I believe in Jesus when you don't do what He says? Too many people who call themselves Christians are fooling themselves, playing deadly games, because they do not honor God's word. They do not make room inside for Jesus, but instead fill their mind with the wonders and beauty of this world, which passes away. Isaiah 55:8 reads, "For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neither are your ways My ways, declares the Lord." Do you think your thoughts are better than God's? If no, then why do you act like they are? Why do you always do things your way? Why do you constantly do what you want? Why does your earthly experience dictate your direction? James says, "But prove yourselves doers of the word, and not merely hearers who delude themselves" (Jam. 1:22). Are you a hypocrite?

My dear friend,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and sharper than any two-edged sword, and piercing as far as the division of soul and spirit, of both joints and marrow, and able to judge the thoughts and intentions of the heart. And there is no creature hidden from His sight, but all things are open and laid bare to the eyes of Him with whom we have to do" (Heb. 4:12-13). The word of God created this earth. "Is not My word like fire?" declares the Lord, "and like a hammer which shatters a rock" (Jer. 23:29)? God's Word is very powerful. Please be humble and listen to His word.

Jesus told the Jews who had believed Him, "Truly, truly, I say to you, everyone who commits sin is the slave of sin. The slave does not remain in the house forever; the son does remain forever. So if the Son makes you free, you will be free indeed" (vv. 34-36). If God's word abides in you, you will be free. If His word is in an honorable place inside you, you will listen to it, and not do what you want. If His word is loved, then you will share it with others, spreading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My dear friend, Jesus Christ is the Word. He is God made in the flesh. He came to this earth to bring salvation. His death paid the cost for your sins, thus allowing you the opportunity to have an eternal relationship with Him. He is in heaven now, preparing your eternal home, and will soon come back to finish His work. While He is away, He has left you with His word. Do you have a special place inside yourself for the Word? If you do, you are the most blessed person in the world. Please continue to listen to His Word and pray to Him. Humbly ask, "Lord, let your Word control me. Let it make me a new creature. Help me to deny myself and take my cross as you asked, and only follow You by faith. Amen." 🙏

다음주일 설교

말씀이 거할 곳



김성곤 목사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³⁰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³¹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³² 좋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함으로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라라.”³³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요 8:31-37)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분을 모시고 간직할 만한 곳
을 마음에 마련하지 않았습다. 인간의 마음은 매우 넓습다. 그런데도 오늘날 대부분의 사
람들은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공간을 마음에 마련하지 않습다. 오직 세상의
가치관과 외관상 아름다는 세상 것들로 자신들의 삶을 가득 채운 뿐습다. 여러분도 잘 아시
다시피 사람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행동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으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 양식에 영향을
주거 마련습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습다. “너희가 내 말
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31b-32b). 유대
인들이 즉시 대답했습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33b). 이로써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음을 나타내 보였습다.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한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아직도 진
리를 모르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다.

말씀을 담아둘 곳이 마음에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
어 있습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습다. 어떤 그리스도인들
은 성경을 열심히 읽기도 합습다. 그러나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전혀 다르게 행동합습다. 예
수님의 제자처럼 행동하지 않습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아, 왜 그럴까? 그들의 마
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장소일 없기 때문입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
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습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공간
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습다. 다행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특별한 공간을 가리키면서 그들
을 정절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다.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 내 속에 지
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순조로 나를 정절케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를 깨끗소서 내가 눈
보다도 밝아리이다”(시 51:6-7).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다행의 진실한 갈망은 그가 거룩한 성경의
말씀을 충실 잘 만나기 위함입다.

시험과 환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그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오직 자신의 대로 합니까? 바울은 말합습다. “그리스도의 날에
이 너희 속에 충성히 거하여도 시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시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골 3:16). 자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
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은지도 실생활 속에는 마귀의 자녀처럼 행동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
할 수 없습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소
중하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것까? 예때마는 안도합습다. “만군의 하
나님 여호와여 나니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시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나의 즐거움임이오”(렘 15:16).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쓴 맛
이 날 수도 있습다. 그러나 일단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간면 그것은 가장 좋은 약이
납습다.

말씀에 고귀한 자리를 내어드리라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고귀한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설교자가 하나님
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은 경외심을 품고 말씀을 경청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자
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열의 깊게 말씀을 들으십니까? 다른 모든 것보다도 자
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장만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습다. “너희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너희가 듣
지 아니하였은 하나님께 배반하지 아니하였음은이오”(요 8:47).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는 또 다
음과 같이 말씀하습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너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마태복 23장 2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습다. “그러므로 누룩은
지 내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만조 위해 지는 지레로 사들 갈조리니.” 이러
면 예수님이 어디로 이끄시는 기쁘게 따라가십니까? 만일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으로 나아가
서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십니다. 사무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부르며 말합습다(우
리말씀장에는 ‘이스라엘의 지존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
나 변함없이 없습다.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하지 않습다(삼상 15:29). 하나
님은 신자들의 영성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생김 영회배우
들이나 유명한 신수들이나 부자들을 존경합습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을 따라
움직이는 것 합습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습다. “바라 내게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
라”(마 23:25). 예수님은 속지 말고도 경교하습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과 72절을 말합습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리 내 길에 빛이시이다.” “주

의 임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보다도 습다.” 다행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습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골과 송이골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라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시 19:10,11).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고귀한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말씀에 고귀한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습습다. 예
수님은 말씀하습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37b). 그들은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
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간직하지 않았습다.
그들에게는 전통에 대한 교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이 세상 것들이 더 중
요했습다. 이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알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습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있었고 남보다도 성경도 읽고 기도도 했습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습습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설교자들과 신학자들과 교인들이 성경을 가르치며 설
교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전혀 없다는 것입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속에 있어야만 하고, 가장 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만
합습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가 없습다. 하나님의 말씀
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
겠습니까? 자기 자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자신의 영혼을 영원한 위험에 방치
하고 있는 사람들입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하시길 장소를 마음에 마련하지 않습다.
대신에 없어도 말 이 세상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워습다. 이사가
55장 8절은 말합습다.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
라.”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은 것 합습니까? 그렇지 않습다. 왜 여러분의
생각을 교습합니까? 왜 세상에 여러분의 방법대로만 하고 합니까? 왜 여러분이 원하는 것
만 계속 행합니까? 왜 이 세상의 경험에 이끌려 행동하려 합니까? 야고보 사도는 말합습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야 1:22). 후서
여러분은 위신자가 아니니까?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이리 곧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함이니 지으신 것이 하나님도 그 안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
물이 우리를 살관하는 자의 눈앞에 열거되는 것같이 드러나나니”(히 4:12-13).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습다. “나
여호와와 사탄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나 만물이 저가 부스르리라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
나”(렘 23:29).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능력 있습다.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
하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습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
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좋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
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함으로 자유하라라”(34-36
b). 습습습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한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자유할 것입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아주 귀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귀를
가울일 것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을 것입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
한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파
할 것입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습다. 그분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습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습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여러분의 죄 값을
다 지불하시고 여러분과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길을 갖게 되습습다. 예수
님은 이제 하늘에 계시며 여러분의 영원히 거할 집을 마련하고 계습다. 그 일이 끝나면 곧
다시 오실 것입다. 지금 이렇게 멀리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은 자신의 말씀을 맡겨 두습습다.
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말씀이 거할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까? 만일 없습면, 어
려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습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하시기 바
랍습다. 겸손히 묵상하십시오. “주여,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
로. 저를 세로로 피조물로 되게 하옵소서, 제가 자기를 부리고도 주님이 맡겨 주신 십자가를 짊어
지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장로칼럼

진정 잘 사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김모용 (장로, 장년2부장)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속도와 경쟁'이라는 단어로 지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한 걸음이자 빠르게 순진하고 충직한 것을 가지지 못해 불행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경향이 요즈음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로부터 '웰빙(Well-Being)'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안정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삼는 이런 삶의 방식은 새로운 문화와 산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에서는 육류보다 생선류가 좋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고, 유기농 야채와 곡식으로 만들어진 건강식을 섭취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허브티 등을 비롯한 몸에 좋은 차를 마시고, 건강보조식품을 곁들이는 것도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신의 안정과 건강관리를 위해 명상이나 요가, 목욕산업의 발달, 피부 관리를 비롯한 건강관리에 관련한 사업들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것이 요즘의 중요한 경향입니다. 남들보다 한 걸음 늦게 가더라도 쉬어가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삶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속도와 경쟁'이라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여유와 평화'라는 삶의 방식을 택하든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든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모두에게 관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사는가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마음 한 구석에 드는 생각은 바로 "이 땅에서만 건강하게 잘 살면 그만"이라는 현재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 땅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로 가서요 지은 집 곧 천국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사는 사람과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성도의 삶은 분명 다를 것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세계에 소망을 두는 것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사는 동안 더 많이 먹고, 육체를 더 건강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인가를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결과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모든 소원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거짓도, 부정도 자원으로 삼는 것으로 받아들일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라 하면 자신이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인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신 성도들은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쁨과 여유, 그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잘 사는 삶'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강한 체력을 가지기 위해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잘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미 잘 사는 비결을 깨달은 충현의 성도들이 아직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건강으로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소망을 품어 봅니다.

지난 수요일에 메시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들(벧전 2:11)

베드로전서는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힘을 내어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세상을 향해서 외친 복음의 말씀이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고난과 시험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라"(벧전 1:16).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잠시 근심하는 성도들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또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전해준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관하노라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벧전 2:11). 특별히, 실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존재이다. 날마다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고 있다. 우리에게서는 이러한 영혼의 전쟁이 끊임없이 있다.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관하노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다면, 나그네와 행인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무와 태도는 무엇 일까?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한다 - 영혼의 싸움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여, 시시때때로 주님을 바라보게 바란다. 영광의 가이이 우리에게 이르는 그 날까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바란다. 왜냐하면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고향(본향)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은 누구에게나 있다.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자랑과 고향! 직접 체험했기에 여전히 눈에 선한 그 곳! 그리기에 결코 잊을 수 없고 늘 돌아가고 싶은 곳! 그곳이 바로 고향이다. 만일 우리가 하늘의 본향도 이와 같이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면, 하늘의 본향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위엣 것을 생각하고 땅엣 것을 생각지 말라"(골 3:2). 비록 바쁘고 분주한 현실의 생활 속에 매여 있는 우리이지만 마음만큼은 저 구름 너머 하늘 본향을 늘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우리의 발은 흙을 밟고 서 있거나 시멘트 바닥 위에 있지만, 마음만큼은 저 황금, 금성, 수정으로 단장한 하늘을 걸으며 할 것이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계 21:18).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니 문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계 21:2).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해 보라.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함과 영광은 저 하늘 본향에 비할 때 정말 아무 것도 아니하다(계 22:1-5). 그러니 더 이상 썩어질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저 영원한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며서 이 땅을 살라. 모든 것이 변화될 저 아름다운 하늘 본향! 그곳을 향하여 한 걸음씩 걸어가도록 하라.

나그네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 나그네와 행인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백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벧전 2:9). 이 놀라운 특권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 이것들은 인간의 법이나 제도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인간의 도덕이나 인적으로 다듬어진 것들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주어진 것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선물을 받고 그리스도의 하사로 연합되었다. 이처럼 세상은 분리되고 그리스도와는 연합된 나그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다. 아무도 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지는가?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며 사는가? 그러한 삶을 장기의 삶이나 다름없다(고전 6:16,17). 구약의 백성들은 옷을 만들어 입을 때에도 반드시 옷단 위에 술을 만들어 달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였다(민 15:38).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절대로 드러나는 옷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단장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 - 나그네의 삶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삶이다. 언제까지인가? 저 하늘의 영원한 본향에 이르는 그 날까지이다. "저는 진리의 영이와 세상은 능히 저를 만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요 14:17).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 보라.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구별된다. 이 세상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알고 그분의 인도와 통치를 받는다. 그렇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나그네로서 살아가면, 우리는 성령을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돌아보도록 하자.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통치를 분명하게 체험하고 있는가? 나그네의 삶은 고달프거나 알 수 없는 길을 가는 도둑행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26).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처량한 나그네가 아니라 맛있는 나그네이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상속받기 위하여 순례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딤후 2:8,10). 그리고 그 모든 길을 성령께서 친히 비취주시기 때문이다(고전 2:10). 따라서 나그네의 삶은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살인 수밖에 없다.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 -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은 슬픔과 눈물과 기쁨이 아니다. 믿음으로 찬송하며 걷는 길이다. 처음 그 길을 시작하는 자들은 그 길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찬송하고, 그 길을 걷는 중간 중간에는 성령의 동행 하신과 인도하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찬송하며, 그 길을 다 마치면 우리는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의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감격과 감사로 찬송하는 것이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리라"고 주 곧 의로우신 제관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의로우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 4:7,8).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된 길을 걸어야 한다. 곧 멸망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하늘의 본향을 그리워하며 성령의 통치 아래서 나그네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주여,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감히하며 걷게 하소서. 아멘!

단기선교인턴뷰

1. 선교를 가기 전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저는 단기선교준비라고 하면 전도방법에 대해 배우고 언어훈련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팀장은 말뚝과 기도 중심으로 훈련을 인도해서 서 불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팀장의 방법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선교하는 기간 내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마다 그 기도가 저에게 가장 큰 자원이 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저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적적 9시가 넘어야 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의 팀원들은 제 시간에 맞춰 늦게 모여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 팀원들의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단기선교를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2. 선교를 가는데 개인적으로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선교는 제가 주님 앞에서 처음으로 큰일을 하고자 하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을 한 후 많은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가게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해서 마음에 시련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 가게를 닫는 한이 있더라도 꼭 단기선교를 가서 사단이 주는 시련에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3. 선교지에서는 어떠셨는지요?

"72에 도착하자마자 거주지점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더 주어서 해결하는 세상살이를 선택하는 대신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떠나기 전 훈련했던 대로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이 닥쳐와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팀원들 중 한 사람도 혼란 없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잘 해결되어 한 도시에서 도착했는데 그곳은 마약을 생산하는 위험지역이었고 우리는 한 영혼도 만나지 못한 채 또 다시 경찰에 의해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나오기 전에 만난 어떤 외국인들이 우리의 아이를 기다리던 그곳에서 가까운 한 지역을 알려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따듯한 한 벽면에 그려진 마조치의 초상화를 보았습니다. 숨이 탁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 벽화를 보는 순간 여기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라도 마음을 다스려 계속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곳에서 속소를 정해 들어갔는데 고려인 여자 한분이 한국 사람들을 아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가정 식구들과 다른 분들에게로 인도해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17살 이하 어린이들에게 전도가 금지되어 있는데 성경의 인도하심으로 고아원을 방문할 수 있었고 많은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손기국 (임사, 90구)

선교지에서 만난 한 사람

일흔이 넘는 한 할아버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나하고 여주었다니 할아버지께서는 공산주의 시절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설명하니, 그림 지어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렇다고 했더니 그러면 믿겠다고 하시며 전도자를 받아들이고 기뻐하시던 모습이 생생하다. 그리고 속소로 돌아오던 중 가관대 앞에 앉아있던 다른 할아버지를 만났다. 그 분께 전도자를 같이 읽을 것을 권하자 그 분은 자신은 글을 못 읽는다면서 어떤 젊은이를 불렀다. 그 젊은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도 돈 지갑을 가지고 다녔느냐?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돈 돈을 받느냐?"하며 계속 탄 이야기만 했다. 그래서 같이 있던 팀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계속 복음을 전했다. 그레도 그는 복음을 완강히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젊은이의 거부와 눈빛이 잊혀지지 않아서 자주 기도하게 된다. 언젠가는 그 젊은이가 꼭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정재모 (안수집사, 90구)

를 믿는 날이 오길 바란다.

◆ 이번주 졸업하는 선교팀

기간	선교지	팀	팀장	기간	선교지	팀	팀장
7월 6일(월)~7월 14일(수)	G	3교구 6지역	정창수	7월 7일(수)~7월 17일(월)	S	10교구 5지역	김경현
7월 6일(월)~7월 15일(목)	M	대학부 20	김남환	7월 7일(수)~7월 17일(월)	D	10교구 4지역	조영환
7월 7일(수)~7월 17일(월)	K	4교구 4지역	박희환				

◆ 현재 사역중인 선교팀

기간	선교지	팀	팀장	기간	선교지	팀	팀장
6월 28일(월)~7월 9일(금)	J	9교구 8지역	조종훈	6월 29일(화)~7월 10일(목)	D	8교구 4지역	이인택
6월 28일(월)~7월 9일(금)	J	17교구 7지역	김영준	6월 30일(수)~7월 9일(금)	K	18교구 7지역	유성진
6월 28일(월)~7월 7일(수)	B	대학부 18	고승관	7월 2일(금)~7월 10일(목)	M	대학부 19	박종철

날새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최대 명령인 선교의 사명을 받고 6년 전부터 기도해 오던 선교지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웠는데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날씨가 온화해졌다는 통역자와 현지인들의 이야기가 듣고 우리 팀원들은 공황으로 마중 나온 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첫 사역지에서 노방 전도와 가정 예배를 통해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한 성경을 주자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서 먼저 이 곳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교회의 예배 순서와 같이 하여 통역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광장에는 150여 명 정도가 모였고 주일 예배 설교와 전도 설교를 경청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더욱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말씀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던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로로는 인간과의 관계를 바로 해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씨와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감사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렘 33:2,3).

박태진(GK 팀장)

선교훈련 소감문

나의 편협한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안녕하세요. 에바다부 청년 민경주라고 합니다. 부족한 글 실력으로 감히 소감문을 쓴다는 것은 생각 못했던 일이라 당황스럽지만, 이처럼 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깊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입니다. 저는 감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다녔는데, 총현교회에 청장 장애인부서가 있고 수화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곳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반 교회에 다니면서 선교는 구화(口話)가 가능한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수화(手話)를 쓰는 청각 장애인들에게는 어렵다는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바다부에 다니던 한 후 제 생각을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바다부에서는 이미 몇 차례 선교를 다녀왔고 그들이 말이 아닌 수화를 통해 선교를 해왔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후로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K국으로 선교를 갑니다. 작년부터 수화를 배우고 대화하기 시작한 티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 나라 수화를 배우고 여러 훈련을 받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시려고 에바다부에 보내신 것이구나. 일반 교회에서 미처 채우지 못한 부분을 이곳에서 채워 주시고 선교를 보내주시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CMTC 훈련을 통해 각 나라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과 타종교와 이단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영혼들도 많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또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던 저에게 장래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 K국 선교훈련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9-20).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명하신 K국에서 당대히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왔습니다.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돌아왔습니다.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글을 쓰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글을 마칩니다. 쓰시시바(타시바) 말로 '감사합니다'입니다)



민경주(에바다부)

◆ 지난주 도착한 선교팀

기간	선교지	팀	팀장	기간	선교지	팀	팀장
6월 21일(월)~6월 30일(수)	D	10교구 7지역	최현민	6월 23일(수)~7월 2일(금)	K	2교구 6지역	정은환
6월 23일(수)~7월 2일(금)	K	에바다부 1	조종훈	6월 23일(수)~7월 2일(금)	G	13교구 5지역	김은환

*선교위원회 방침으로 인하여 국가검은 밝히지 않습니다.

교회 탐방 48 여름계절학교를 위한 교사강습회

거듭남,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거듭남 천국일꾼'이라는 주제를 놓고 6월 13일부터 3주 동안 주일마다 교사강습회가 개최되었다. 애마다 반복되는 여름계절학교이지만, 교회의 5대 목회에 맞추어 새롭게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교사들이 어떻게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강습회에 참여하신 교사 몇 분을 만나보았다.

1. '거듭남 천국일꾼'이라는 주제를 교사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요?

"사실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정말 진지하게 거듭남에 대해 생각해 본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제를 배우면서 먼저는 제 자신이 거듭남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사인 제가 먼저 '거듭남'을 경험하고 확신해야 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거듭남 교사란 아이들이 영혼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길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영아, 유아, 유치부 어린이들을 위해서 거듭남의 증거들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또한 이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신령한 그 역사가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자, 유년부 교사)

"처음에는 너무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습회에 참여하여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제 힘으로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거듭남'이 어렵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거듭남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임을 알고는 마음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일꾼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거듭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종적으로 여름성경학교에는 인물이 대한 성경공부에 치중하였지만,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함윤자, 유년부 교사)

"사실, 저 자신부터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제를 배우면서, 정말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주된 목적인데도 어떻게 이것도 모른 채 왔었다는 부끄러움 했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부터 거듭남의 역사를 사모하게 되었고, 저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교사인데 학생들 앞에 서서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면, 그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순, 중등부 교사)



"먼저, 교회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교회의 5대 목회에 적합하게 교과과정이 짜여지고 교재가 제작되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정말 천국일꾼 양성을 위하여 힘을 쏟고 있음을 느끼며 세상 감사하게 됩니다. '거듭남'이라는 주제가 학생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먼저 교사들이 강습회를 통해서 주제의 중요성과 내용을 충분히 배우고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지만, 교사들이 먼저 이 주제의 중요성을 확신하고 교사들 자신의 거듭남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힘입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이번 여름수련회를 통해서 거듭나고 천국일꾼으로 자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홍순걸, 고등부 교사)

2.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어른들이 '청지기 훈련'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어떤 주제를 배우면서 특별한 작성을 체험하는데,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그런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요, 전에 어떤 어린이가 성경학교에서 말씀을 배운 뒤에 깨우치고 감사한 마음을 부모님에게 표현하고 자랑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변화되고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선자, 유년부 교사)

"성경학교를 흔히 '천국잔치'라고 부르지요. 평소에도 주일마다 성경공부가 있지만 여름성경학교에는 집중적으로 더 깊고 더 많은 말씀을 배울 수 있어서 말 그대로 '잔치'이지요. 여름성경학교에는 정말 은혜가 풍성합니다. 먼저, 교사들이 복음의 충성한 말씀으로 무장하고, 거듭남의 필요성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십자가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면, 이번 성경학교도 천국잔치가 되었지요." (함윤자, 유년부 교사)



"계절학교는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제 말만 해도 지금은 대학생이지만 중3 수련회 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고 고백하거든요. 계절학교는 특별히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요. 그러나 먼저 교사들에게 그러한 변화에 대한 기대나 꿈이 없다면, 형식적으로 참여하며 프로그램에 치중하거나 자기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무엇인가 이뤄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기대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행한다면,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학생들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진순, 중등부 교사)

"임시에 늘 시달리고 있는 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여름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일이지요. 하지만 여름수련회만큼 효과적으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평소에도 교육이 이뤄지지만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 개념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교육을 잘 받으면 평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지요." (홍순걸, 고등부 교사)

3. 여름성경학교를 앞두고 학부모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세상적인 교육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름성경학교에 자녀들을 꼭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잘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이 일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선자, 유년부 교사)

"계절학교 기간은 물론이고, 평소에도 우리 학생들이 각 교회학교 별로 제작되는 충현의 만사를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보다 더 달게 느끼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체험하며 자랄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훈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발행하는 교재가 아주 좋은데, 그것을 유년부 학생들이 스스로 잘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으니 부모님들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함윤자, 유년부 교사)

"여름계절학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영적인 변화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준비하듯, 부모님들도 똑같은 기대와 소망으로 자녀들을 준비시켜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김진순, 중등부 교사)

"고등학생들의 경우, 성직과 학업에 관심이 많지만 신앙을 위한 교회 교육에 부모님들이 제1순위를 두셨으면 합니다.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보내주시면 교사들이 기도로 준비한 말씀을 학생들에게 힘써 가르쳐겠습니다." (홍순걸, 고등부 교사)



교사들을 만나본 후에 우리는 교사강습회를 통해서 먼저 교사들이 변화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오직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는 많은 교사들이 그들의 수고 위에 주께서 안락한 은애를 베푸사 거듭남의 복된 역사가 교회학교의 모든 교사와 학생들에게 능력있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새가족들과의 만남 ③

“신기하게 변한 나의 모습”

최영하 (고동부 3년)

학교 담임 선생님이 충현교회 고동부 교사이신데, 선생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도 간간히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마음을 정하고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고동부에 온 지 두 달 정도 되었는데, 아직 작은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약간 어색하기도 하지만 선생님들이 잘 대해 주셔서 정말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남양주시 삼과동에 살고 있는데, 주일이면 아버지가 교회까지 차를 태워주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 혼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교회에 옵니다.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는 가끔이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에 오면 뭔가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 좋습니다. 충현교회 고동부에 와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인인 저와 하나님 사이에서 마치 다리라고 같은 역할을 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런 내용을 듣거나 배우면 왠지 거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부감이 별로 없는 걸 보니 믿음이 자라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렸을 적에 교회에 다니면서 가끔 들은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체험이 저의 믿음이 자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제 삶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는 것 같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어느 때 보면 혼자서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런 제 모습이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된 친구들도 제가 좋은 방향으로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물론 때로는 비슷한 친구들도 있지만 신장 안 씩니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특별히 구약의 이야기들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새가족부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동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교제에 지어오는 친구들이 지금 당장은 믿음이 가지 않아도 꾸준히 나와서 배우다 보면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열심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끝까지 지켜봐 주신 주님

내가 다니는 학교는 기독교학교이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회가 있다. 나도 처음 중학교에 입학한 때부터 늘 기도회에 나가고 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 평게 감지 않은 평계를 대면서 예배나 기도회에 몇 번 빠지고 보니 어느새 학교 기도회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단장을 피우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예배시간에 봉사하고 있는 현악반에서도 좋지 못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내 태도가 잘못 되었다거나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항상 단장을 피우면서도 스스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늘 생각했다. '이 정도 하면 잘 하는거지 더 이상 어떻게 한단 말이지. 이 정도면 충분해! 늘 교회에서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배웠지만, 그것이 내 생활에 연결되지는 못했다.'

이런 태도와 생각으로 한동안 기도하나 예배를 참석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이런 태도들이 잘못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생각만 했지 직접 실천에 옮기거나 태도를 바꾸려고 한 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날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내 가슴 한곳은 찢어져 조금씩 파뀌어왔던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처음엔 나의 행동들을 바꾼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하는 나를 볼 수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도 바로잡히 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정말 여러모로 많이 부족한 나였지만 주님은 끝까지 날 지켜봐 주셨다. 정말 주님께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끝까지 봐주셨다. 나는 정말 주님께 다 갚지 못할 많은 것들을 선물로 받았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싶다. 아직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고 늘 주님께 기도하는 것인 것 같다.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싶다.



문상호(중동2부)

함께 가는 이름

김해자 (집사, 8교구) 김해자 집사님은 간이 점점 굳어지고 있어 몸이 상당히 약해져 있습니다. 위장, 비장, 식도의 모세관 등이 약화되어 있는데 특히 식도의 모세관은 터지면 생명이 위협당하고 합니다. 의사의 권유로 현재 출원중에 있어 양에 있습니다. 이에 성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손종숙 (권사, 8교구) 손종숙 권사님은 얼마 전 양쪽 무릎을 인공 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은 잘 마무리되었지만 한쪽 무릎이 움직이기에 아파드라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준 성도들의 사랑의 빛에 감사하며 더욱 많은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다름 주일 찬송

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다름 주일 찬송 ‘예수 나를 오라 하네’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작사되었다. 특별히 1,2절과 4절을 중심으로 가사의 내용을 목상해 보자.

1,2절 : 깃세마네 동산은 제자들이 낙재한 곳이다. 육신의 피곤을 이기지 못해 피망 흘리며 기도하든 주님과 아픔을 잠시도 함께 하지 못했다.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는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에 한다.

4절 : 그리도도는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과 용기를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나 영광을 보여 주실 것을 믿고 언제 어디나 순종하며 따라 가겠는 것이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늘 따라 가겠다는 마음으로 찬양하에 한다.

그리도도는 우리를 오라고 하시며 깃세마네 동산뿐 아니라 십관할지 자리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한 주간 동안 이 찬송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자.

(찬양위원회)

새·가·족·을·함·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소속부서	인도자
1567	김성기	19	창원2부 김성준(6)	1624	한성훈	14	창원1부 김성준(6)	1651	문재경	19	대북부 김지호(8)	1678	전희재	19	창원1부 박성민(7)
1568	김미애	1	창원2부 김성준(6)	1625	이성환	14	창원1부 김성준(6)	1652	박동훈	19	대북부 박성준(1)	1679	전동근	19	창원1부 남종욱(12)
1569	김옥희	1	소망부 송진규(8)	1626	이민희	14	창원2부 안승국(8)	1653	김조	19	대북부 박성준(1)	1680	원현주	19	창원1부 김홍자(8)
1600	신동훈	2	창원2부 김두현(2)	1627	김영하	14	창원2부 전진재(15)	1654	이혜은	19	대북부 김지현(10)	1681	이인영	15	창원1부 안민숙(15)
1601	김지태	3	창원1부 송광주(11)	1628	김갑기	14	창원1부 박형래(16)	1655	이인영	19	대북부 김영래(10)	1682	정희재	19	창원1부 최낙민(16)
1602	박재필	4	창원2부 박익현(4)	1629	임미연	15	창원2부 조복실(15)	1656	양하나	19	대북부 안승국(8)	1683	손준진	19	창원1부 김준호(2)
1603	한성필	5	창원2부 장우현(8)	1630	윤민	15	창원2부 조복실(15)	1657	김미애	19	대북부 박성준(1)	1684	유은진	19	창원1부 최영래(17)
1604	이영미	5	창원1부 김보라(3)	1631	김경훈	16	창원2부 박성준(16)	1658	김미애	19	대북부 박성준(1)	1685	정종준	19	창원1부 정현재(17)
1605	이영진	6	대북부 이기봉(8)	1632	최재현	16	창원2부 이영진(16)	1659	김재현	19	대북부 김성준(1)	1686	최현호	19	창원1부 구세준(2)
1606	함숙희	7	창원2부 박익현(4)	1633	함은주	16	창원2부 이영진(16)	1660	오은영	19	대북부 정영진(4)	1687	최현호	19	창원1부 정영래(1)
1607	홍덕미	7	창원2부 김은진(7)	1634	유규진	17	창원3부 김경래(17)	1661	김영하	19	대북부 박성준(1)	1688	정종준	19	창원1부 이신동(7)
1608	함승호	8	창원2부 김영래(18)	1635	김석필	18	창원2부 이영진(7)	1662	정종준	19	대북부 정시은(2)	1689	정종준	19	창원2부 정영진(1)
1609	정영은	8	창원2부 구영래(18)	1636	안민희	18	창원2부 안영진(18)	1663	이건기	19	대북부 이우희(10)	1690	안종근	19	창원2부 안영진(18)
1610	김종식	8	창원2부 김영래(18)	1637	김종현	19	대북부 박성준(1)	1664	변정아	19	대북부 남종욱(14)	1691	최희철	19	창원2부 박현숙(19)
1611	김영선	8	창원2부 김영래(18)	1638	최영래	19	대북부 정영진(1)	1665	김종현	19	대북부 이우희(10)	1692	김종현	19	창원2부 박영진(1)
1612	김필재	10	창원1부 이영진(10)	1639	김종현	19	대북부 정영진(1)	1666	송정연	19	대북부 김경래(19)	1693	김지은	19	창원1부 김성준(1)
1613	김진태	10	창원1부 최영진(10)	1640	최영준	19	대북부 김경래(19)	1667	조수빈	19	대북부 김성준(1)	1694	홍나	19	창원1부 박성준(1)
1614	지영희	10	창원1부 최영진(10)	1641	구은주	19	대북부 최영진(19)	1668	최정현	19	대북부 최영진(19)	1695	유나	19	창원1부 박성준(1)
1615	박영민	10	창원1부 최영진(10)	1642	권은진	19	대북부 김경래(14)	1669	김재현	19	대북부 오성준(4)	1697	아라나	19	창원1부 김경래(18)
1616	김도형	4	창원2부 송영준(14)	1643	김종민	19	대북부 김경래(19)	1670	전진	19	대북부 김경래(17)	1698	황영진	19	창원1부 신영숙(1)
1617	홍숙희	11	창원1부 양영준(15)	1644	김국주	19	대북부 정영진(1)	1671	고경호	19	창원1부 김경래(17)	1699	태현자	19	창원1부 신영숙(1)
1618	김윤진	11	소망부 나영래(1)	1645	황영준	19	대북부 정영진(1)	1672	하지선	19	창원1부 고영래(19)	1700	나영진	19	창원1부 구영진(4)
1619	김승진	12	창원1부 박희진(2)	1646	황영준	19	대북부 정영진(1)	1673	이규원	19	창원1부 최영진(19)	1701	조지	19	창원1부 최영진(1)
1620	김지현	12	창원1부 정영진(10)	1647	김재현	19	대북부 최영진(19)	1674	김지현	19	창원1부 최영진(19)	1702	최지	19	창원1부 최영진(1)
1621	이혜숙	13	창원1부 최영진(18)	1648	김진태	19	대북부 최영진(19)	1675	민지선	19	창원1부 최영진(19)	1703	박지	19	창원1부 최영진(1)
1622	유은진	13	창원1부 최영진(18)	1649	정영진	19	대북부 최영진(19)	1676	황지현	19	창원1부 최영진(19)	1704	유지	19	창원1부 최영진(1)
1623	김민희	13	창원1부 최영진(18)	1650	김주미	19	대북부 최영진(19)	1677	최현진	19	창원1부 최영진(19)	1705	황지현	19	창원1부 최영진(1)

* 순회교회와 한 가족이 피기를 원하시는 분은 2002년 24기종 동종족도 오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TV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 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 clock Worship Service.